

금년 복경기 큰 기대 인해

- 불공정한 계약문제 가장 큰 선결과제로 꼽아 -

지난 6월 1~2일 1박 2일간 경상남도 고성군소재 문화체육센터에서 제14회 전국육계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육계인을 대상으로 현재, 육계를 생산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03명으로 사육규모를 보면 평균 육계사육수수는 40,100수로 나타났으며, 5만수 미만은 59.2%, 5만수~10만수 미만은 39.8%, 10만수 이상 되는 농가는 3.9%로 지난 2월 정기총회때 조사된 4만 9천수 보다 약 9천수기량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농가를 지역별로 볼 때 충남 37.6%, 경기 18.8%, 경남 18.8%로 나타나면서 이 세지역이 75.2%를 차지하였고, 전북 등 나머지 지역이 24.8%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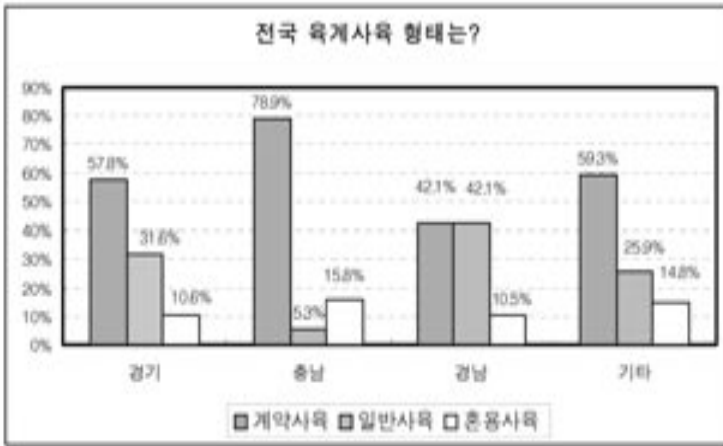
1. 현재, 육계사육 형태는?

설문에 응해준 육계농가는 전국적으로 63.1%가 계약사육, 22.3%는 일반사육, 13.6%는 혼용사육, 나머지는 기타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는 경기지역이 57.8%, 충남지역이 78.9%, 경남지역이 42.1%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59.3%로 조사되었

다. 또한 일반사육은 경기지역이 31.6%, 충남지역 5.3%, 경남지역 42.1%, 그 외 지역 25.9%로 조사되었다.

경기·충남 지역과 달리 경남지역은 계약사육과 일반사육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설문에 응해준 경남 고성지역인들이 중심이 되어 답변을 주었고, 계약사육이 힘든 지역 특성상 일반사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에서 입식 열기가 높았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육계업의 선결과제는?

2006년 육계업 선결과제에 대해

육계인들은 불공정한 계약문제 해결 28.6%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급조절이 27.6%를 차지하였고, 유통구조 개선은 19.0%, 의무자조금 조기시행과 한미FTA 협상이 각각 8.6%, 육계생산성 향상이 5.7%, HPAI 재발방지는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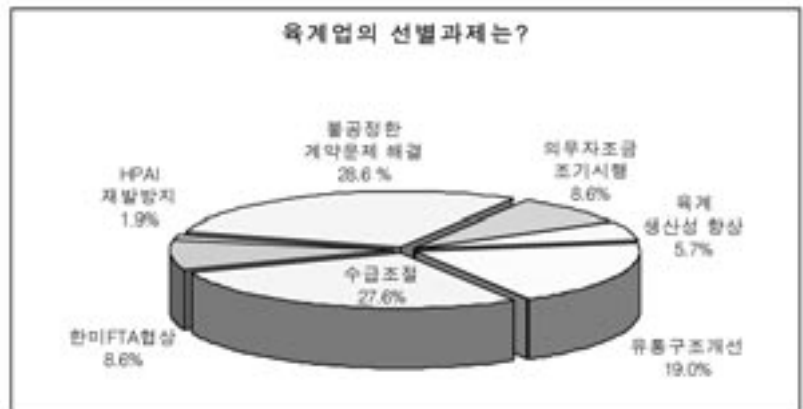
구분	경기	충남	경남	기타
계약사육	57.8%	78.9%	42.1%	59.3%
일반사육	31.6%	5.3%	42.1%	25.9%
혼용사육	10.6%	15.8%	10.5%	14.8%
기타	-	-	5.2%	-

지난 2006년 정기총회 조사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26.8%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한미FTA와 AI질병예방 대책 순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재 계약사육을 통해 육계생산자 입장에서 계열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여전히 불편한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국내에 발병이 되지 않아서인지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 수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한미FTA도 그 비율이 낮았다.

2. 금년 복경기 전망은?

지난 5월 종계·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올 상반기 말에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 발표하였다. 예년에 비해 4천~1만 3천수가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육용종계 입식수가 많아, 소비가 많더라도 공급량이 많은 점을 반영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올 복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였지만, 6월 달에 들어 병아리 가격이 5일에 220원, 8일에 320원, 12일에 420원, 19일 620원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년 복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육계농가에서 보는 올해 복경기 전망은 나쁠 것이라는 의견이 50%로 절반가량 조사되었다. 42.9%는 모르겠다, 나머지 7.1%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6월 초 조사 당시, 육용병아리 가격이 100원을 기록하면서 많은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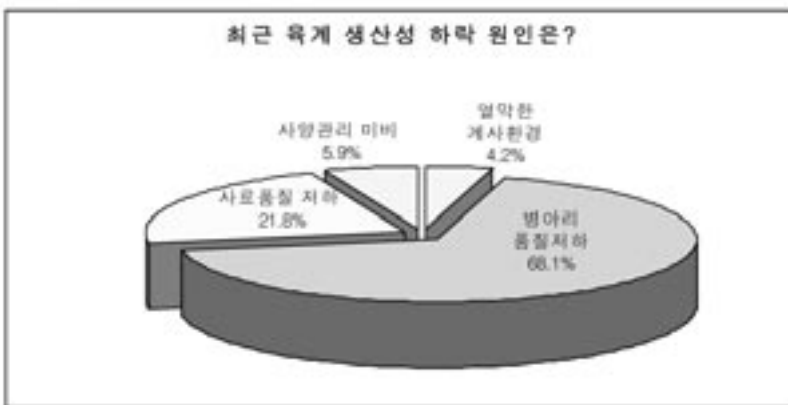


4. 최근 지적되고 있는 육계생산성 하락의 원인은?

최근 들어 육계농가의 생산성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호 기사에서도 다뤘듯이, 전라 남도와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계농가 측에서는 현재, 육용종계가 경제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우시킨 종계노계로부터 육용병아리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입추한 지 열흘 안팎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한 사료문제를 논하는 농가도 있고, 육용종계의 음성적인 티푸스 백신 접종으로 육계농가가 그대로 피해를 떠맡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 육계농가는 육계생산성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하였다.

결과는 역시 병아리 품질저하가 68.1%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그 뒤로 사료품질 저하가 21.8%, 사양관리미비 5.9%, 열악한 계사환경 4.2%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병아리 실명제 도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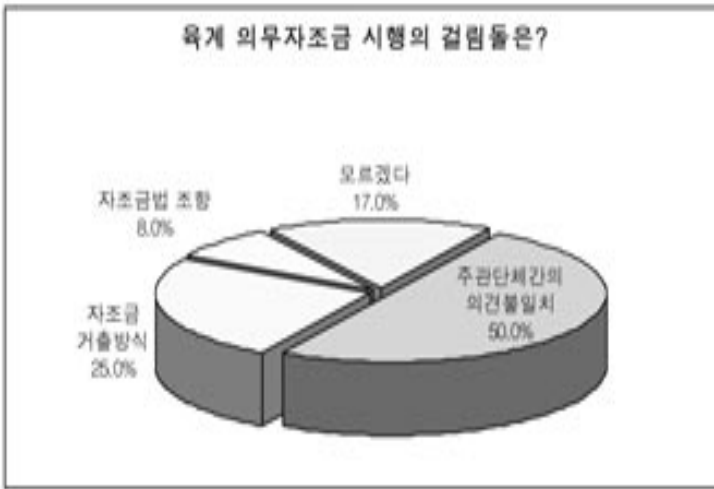
5. 최근 농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은?

질병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육계농가에서는 전염성 기관지염(IB)이 25%로 가장 심각한 질병 피해를 주는 질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대장균이 21.1%, 가금티푸스 16.4%, 뉴모바이러스 12.5%, ND 10.5%, 저병원성AI 8.6%, IBD 7.2%, 기타 3.3% 순으로 조사되었다. IB(전염성기관지염)는 농장에 자주 나타나는 호흡기 질병으로 출하시 '이동차'로부터 전염을 받아 남아 있는 계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료차, 사양지도 방문객 등의 방문시에도 전파가 쉽게 이루어져 유행시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IB 단독감염만으로는 폐사율이 5% 이하로 피해가 심하진 않지만, 대장균이나 마이코플라즈마가 쉽게 2차 감염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장균은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29일령 이후 설사를 동반하는 질병으로 사료섭취를 못해 약추처럼 증체지연 현상이 나타난다. 육계에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ND는 정부의 백신 공급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모바이러스가 신종질병으로 ND보다 농가에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육계 의무자조금 시행의 걸림돌은?

2005년12월 23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지 4개월만인



7. 계약사육에 있어서 애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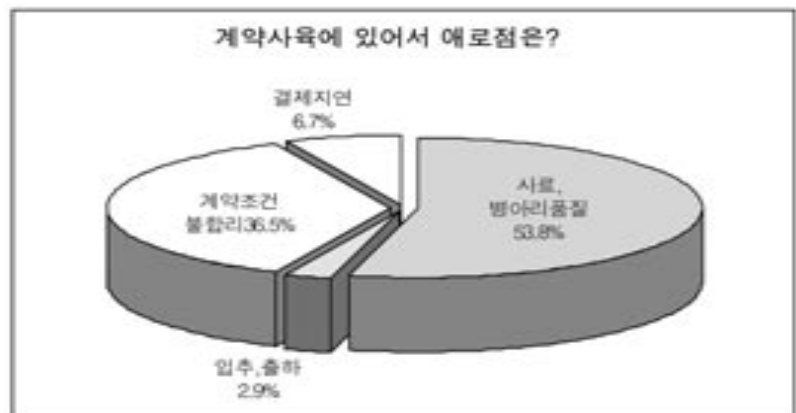
육계농가에서 계약사육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열업체의 일방적인 조건에 맞춰 가야하는 것이 생산자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육계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토대로 계약사육에 있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위에서도 설명된 최근 육계 생산성 하락의 최대 원인이라 조사된 병아리 품질저하 문제와 같이 계약사육에 있어서 사료·병아리품질이 53.8%를 차지했다. 육계인들이 당면하는 고통은, 35일령 가량 키운 닭의 많은 물량을 제 날짜에 맞춰 출하 일령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이 계약사육을 실시해 그전까지의 각 농가실적에 맞춰 업체로부터 사료와 병아리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계열업체의 불합리한 조건에 묵인하고, 일방적인 조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생산자의 입장이라 토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조건 불합리가 36.5%를 차지하였고, 결제지연이 6.7%, 입추·출하문제가

지난 4월 20일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결정된 자조금 거출금액은 거출비율 2.5/1000, 수당 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품종별 거출비율에 대해서는 육계 100%(5원/수), 삼계 50%(2.5원/수), 재래닭 150%(7.5원/수), 총계 1,000%(50원/수)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모아지는 자조금은 약 25억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과 합하면 50억원으로 자조금 사업이 운영되게 된다.

하지만 자조금총회가 개최된 이후 1개월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이 보이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총 3개 단체로 이루어진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견불일치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조금거출방식(비율)이 25%, 모르겠다는 의견이 17%, 자조금법 조항 문제가 8%로 조사되었다. 자조금 거출 방식과 비율도 계열업체, 육계인, 종계인들의 지속적인 협의로 보다 개선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으로 조사되었다.

8. 2007년 정부에서 폐지에정에 있는 기금수급안정위원회 존속여부는?

수급안정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01년 양돈과 가금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안정자금 1천억원을 조성해 출범시킨 생산자조직 중심의 민간주도 자율수급조절기구이다.

그동안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홍보사업에 치중해 온 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이 자조금사업과 중복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5월 농림부 농림사업투융자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내년부터 지원 중단이 결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존속여부에 대해 육계 생산자들은 67.7%로 존속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 모르겠다는 의견은 21.5%, 필요없다는 의견은 10.8%로 나타났다.

차후 DDA, FTA협상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계산물 수급을 통한 양계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급안정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육계인들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경제능력검정사업에 대하여?

1966년 서울시 도봉구에 검정소를 개소하여 현재, 안성으로 이전하여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능력검정이란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정으로 검정소에서는 육용계의 육성율과 체중,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경제성과 산란계의 산란율, 산란지수, 난중등급 등을 검정항목으로 갖고, 전

국 양계업자들의 병아리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정사업 성적이 병아리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0.9%로 나타났지만, 31.2%는 필요하지 않다, 28.0%는 모르겠다고 조사되었다.

향후 검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69.6%는 필요하다, 23.9%는 모르겠다, 6.5%는 필요없다라고 답하였다. 검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농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육계업계 발전을 위해 양계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양계업계(협회)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선 문항에서 53.8%의 많은 비율을 사료·병아리 품질에 대해 병아리 품질 기준설정과 사료품질기준 설정을 발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외 의견으로 계열사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각 농가의 의견을 모니터링 해서 협회 차원에 대응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 설문 답변에서도 나온 홈페이지의 개편에 대해 이번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현재 보완·수정 중인 양계협회 홈페이지는 종계D/B프로그램, 날씨정보, 사고팔기, 묻고 답하기 등의 별도 창을 제작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오는 7월 초에 개편될 예정이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